



석양도 쉬어가는 홍성 느리실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충남 홍성 느리실마을은 은봉산과 해명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늑한 시골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성을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이 마을은 홍성읍내에서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천수만과 아주 가까운 서부면 상항리에 위치한다. 한 마디로 이 마을은 농촌과 어촌의 모습이 잘 어우러진 사계절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정겨운 마을이름인 '느리실'은 “벼가 누렇게 익어 골짜기가 온통 황금물결을 이룬다”는 의미의 옛 지명이라고 한다. 마을 내부에서 넓게 바다를 향해 펼쳐진 고래실논은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쌀 맛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느리실마을에 대해 귀동냥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필자는 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보기로 했다. 2011년부터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철섭 대표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이 마을 머슴이자 막내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엄용기 사무장만 만날 수 있었다.(1976년생이니까 막내는 막내였다. ^^)

“작년(2014)부터 사무장을 맡게 되었는데, 원래 이 마을이 제 고향이고 2002년에 귀농을 했다.”고 소개했다.(아직 미혼이니 관심있는 여성분들의 많은 눈길을 부탁~)

이 마을은 처음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다양한 농촌체험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엄 사무장과 인터뷰했던 ‘바다음식 체험관’을 비롯해 ‘저녁노을관’ 등을 운영하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도농 교류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홍성 느리실마을 엄용기 사무장〉



〈바다음식 체험관〉



〈저녁노을관〉

그러나 마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엄 사무장은 “운영위원들과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서로 믿지 못하는 거다.”라며 “그러다보니 체험객이 오면 마을주민들도 함께 거들어야 하는데, 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로만 이끌어가려니 힘든 게 뻔했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는 현재 총 49가구, 약 90명이 살고 있지만, 정작 체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7세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필자가 마을에 들어서니 마을 언덕위에 공사가 한창이었다. 바로 ‘오토캠핑장’을 짓고 있다는 거다. 홍성 일대 4개권역(궁리, 원당, 상항, 속동)이 ‘천수만권역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업 사무장은 “오토캠핑장은 폐교가 된 상황초등학교 자리였는데 이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끝에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캠핑장 뿐만 아니라 마을을 찾는 체험객을 위한 숙박시설, 화장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자가 느끼기에 캠핑장~하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의문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캠핑장을 운영할 전문운영인력 등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니 그동안 좀 더 좋은 방안이 모색되길 바라는 맘이다.

현재까지 이 마을의 주 수익원은 식당 운영이라고 한다. 조금은 의외이긴 하지만 홍성에서 열리는 내포축제, 국화축제 등에 참가해 식당을 운영하며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체험객 1,600명이 다녀간 것보다 많은 액수라고. 업 사무장은 “나중에 캠핑장이 들어서면 이곳에도 식당과 특산물 판매장을 열어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게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느리실마을은 체험이 주된 테마임에는 틀림없다.

이른바 4가지 테마로 연결되어 있는데, 마을 체험, 승마, 갯벌, 낚시로 구성된다. 우선 마을에서는 봄부터 체험이 시작되는데 두릅과 머위 따기, 여름에는 감자 캐기와 수박 따기 체험, 고추 따기, 옥수수 따기 등이 있다. 가을에는 포도 따기와 고구마 캐기 체험, 그리고 겨울에는 해수절임배추 체험 등이 있다. 또한 연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지락 칼국수 만들기 체험과 간장게장 담그기 체험은 인기 만점 프로그램이다.





〈느리살마을의 각종 체험 모습〉

※ 자료: 느리살마을 제공

또한 인근에 위치한 홍성군 승마체험장과 연계한 승마체험, 바닷가 속동마을과 연계한 갯벌체험과 바지락캐기, 그리고 지난해부터 개시한 천수만 권역사업단이 운영하는 해상낚시터에서의 바다낚시체험 등이다. 더구나 이곳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쉼터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남당항과 궁리항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축제기간에는 관광객이 발 딛을 틈조차 없을 정도다.



〈느리실마을과 연계한 주변의 우수한 관광·체험 자원들〉

엄 사무장은 “우리 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우수한 자원을 적극 활용한 체험으로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며 “체험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 창출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마을에서 사무장 일만 할 수도 없는 게 시골이다. 엄 사무장도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농기계 판매영업도 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라도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가 절실한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 느리실마을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된다. 붉게 타오르는 서해바다 저녁노을 아래 석양도 쉬어가는 유일한 마을이 되길 바라는 맘이다.

